**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할 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왜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단연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셔서 세상에 내보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마치 짝사랑에 빠진 사람이 상대의 관심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신다!

선교는 바로 이 사실에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신들은 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의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창조세계 속에서 평안과 번영, 풍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복이 온 인류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어 다른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알려주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되어 보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온 인류에게까지 흘러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비전에 믿음과 순종으로 동참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일에 쓰임받았고, 바울이 그렇게 보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열방에 선교하기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선교를 위해 바울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해 알려줄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들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한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지어 심판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보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 포로 신세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 복수해 주시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실로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멸망시킨 적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원수들을 위해 복을 빌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포로기 칠십 년이 차면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그 땅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암울한 포로생활 중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두 가지 사명을 부여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는 것.

다른 하나는, 그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결정적으로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에게 약속된 축복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온전한 성취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과 삶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참 구원의 길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28:19-20)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 그리고 복이 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라 …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어디에 가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지식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으로 반응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된 지식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낸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1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그들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고국이 아닌 낯선 땅에서, 그것도 모진 신앙의 박해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힘겨운 상황 속의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음과 같이 일깨워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그 기이한 빛 속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먼저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먼저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복된 지식의 전파를 위해 특별히 선택되어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5정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로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존재와 행동으로 그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로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처럼,

하나님에 의해 이국 땅으로 보내어진 사람들, 곧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체코 땅에 보냄받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곳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날마다 더욱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체코 크리스천들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을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말과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체코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할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늘 바라보며 살아야 할 초점입니다.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 속에서 표류합니다.

반면 이 초점만 분명히 견지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선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선교적인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의 예배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높임받으실 분임을 증거하십시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심을 증거하십시다!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연합의 예배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증거하십시다!

우리의 교육이 선교적인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르게 심어주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계속해서 전수되고 전파되게 합시다!

또한 우리의 교제가 선교적인 교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온전히 증거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풍성함을 서로 나누며 경축하며 살아갈 때, 의와 기쁨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증거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봉사가 선교적인 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혜를 선한 청지기처럼 이웃들과 나누는 일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받은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과 희생을 세상에 진실하게 증거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체코 땅으로 보내어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한 알려주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에 신실하게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고자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당신을 알리고자 하시는 당신의 열심이 참 놀랍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날마다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르게 알려주며 살게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한 바르게 알려주며 살고자 하는**

**꼬빌리시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